



INCHEON AIRPORT MAGAZINE

# MORE & BEYOND

MAY+JUNE  
Vol.87



INTRO

세계를  
하나로 잇는

인천공항



사람과 사람을 잇고,  
문화와 문화를 잇습니다.  
공간과 감성을 하나로 묶고  
인종과 성별을 하나로 잇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를 연결해  
세계를 하나로 이어갑니다.

공항에서 만난 낯선 타인들마저  
여행자라는 공통의 이름으로  
춤춤하게 이어 공간을 형성합니다.

당신과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인천공항에서 새로운 무대를 펼쳐 보세요.





## 여행의 목적지가 되는 공항

여행이라고 하면 한 치의 결점도 없이  
완벽하기를 모두가 바랄 것입니다.

인천공항은 최고의 공항 노하우로  
전세계 여행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과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고  
최고의 서비스와 최첨단 시스템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서  
진정한 여행의 가치를 느껴보세요.



# CONTENTS

**MORE&BEYOND**  
2023 MAY+JUNE  
VOL.87

인천국제공항 매거진  
**MORE&BEYOND**  
2023 MAY+JUNE / VOL.87  
격월간(비매품)

등록번호 인천중, 바00008  
발행처 인천국제공항공사  
발행인 김경욱  
발행일 2023년 5월 1일  
담당부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홍보실 032-741-2115  
기획·디자인 및 제작  
승일미디어그룹 1800-3673

## PLUS I CULTURE & LIFE

**08**  
**ESSAY**  
공항, 잠자고 있는 세포를 깨우는 곳

**12**  
**TRAVEL**  
당신이 꿈꾸는 여행지의 모든 것  
인도네시아 발리

**20**  
**PEOPLE**  
낮섬 속에서 길어 올린  
행복하고 정직한 삶

**26**  
**LIFE STYLE**  
알뜰살뜰 소비자  
체리슈머

**30**  
**TREND**  
어른이지만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네버랜드 신드롬

**34**  
**CULTURE**  
한 장의 그림으로 보는 영화  
<맥스 달튼, 영화의 순간들>

**38**  
**SPACE**  
황금물결 일렁이는  
인천공항 하늘정원

**44**  
**HEALTH**  
가상세계의 헬스장  
메타버스 트레이닝

## PLUS II AIRPORT ISSUE

**46**  
**LIVE**  
낭만과 감성이 넘치는  
여행자들의 꿈의 공항

**50**  
**AIRPORT PEOPLE**  
일상 밖에서 다시,  
나를 찾아가는 여행

**54**  
**INDUSTRY**  
인공지능은 인천공항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

**58**  
**ISSUE**  
다시 찾아온 봄  
다시 활력 찾은 인천공항

**62**  
**ESG**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1분 만에 로밍하기  
가제트코리아

**66**  
**SPOT**  
인천공항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오성산 전망대 &  
제2여객터미널 홍보전망대

**70**  
**TIP**  
집에서 공항까지 스마트하게  
인천공항 가이드 모바일 앱

**72**  
**SENSE**  
비행기 날개 끝  
'윙렛'을 주목하라

**74**  
**NEWS**

**78**  
**EVENT**

**79**  
**EPILOGUE**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본 간행물은 FSC 인증을 받은 종이와  
공기를 잉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 공항, 잠자고 있는 세포를 깨우는 곳

티켓을 끊고 여권을 들고 공항에 간다.

그동안 활동하지 않았던 게으른 세포가 놀라서 깨어난다. 나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

몇 시간 후면 낯선 나라에 도착할 것이다. 미지의 세상을 탐험하기 위해 내 세포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현대인의 고질병 치매! 특효약은 공항이며 여행이다.

글. 김원희 여행작가

60세에 시작한 첫 해외 자유여행, 먼저 비행기 표를 구해야 한다. 돈은 많지 않다. 내 수준에 맞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한다. 저가 항공 사이트를 뒤진다. 눈에 들어온 착한 가격의 티켓을 발견한다. 순간, 내 온몸의 세포가 한곳으로 집중한다.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는 성명, 주소, 성별, IN OUT 날짜 등...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 영문 이름이 틀리면 공항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마지막 결제를 하고 발권이 완료되는 순간의 환희, 내가 해냈다. 아직 나의 뇌세포는 정상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순간이다.

국제선 탑승구로 들어가는 순간, 온몸으로, 콧속으로 들어오는 세상의 냄새들, 내가 몰랐던 다른 세상에서 살다 온 사람들의 냄새, 다른 피부와 다른 옷차림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 속으로 내 냄새도 들어간다. 내가 항상 맡고 있는 좁은 세계의 한정된 냄새 밖의 냄새는 나를, 정확히 말하면 나의 세포를 흥분시킨다. 아드레날린이 솟기 시작한다. 흥분은 호기심과 자유와 함께 약간의 공포도 포함된다. 약간의 공포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공포는 조심하라는 경고를 준다. 누구에게든, 어느 장소에서든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메시지를 준다.

약간의 공포와 호기심과 무한한 자유로 세포는 한껏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준비한다. 낯선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내가 찾아가야 할 게이트와 내가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것들과 놓치지 말아야 할 순간의 시간을.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누구는 이별을 슬퍼하고, 누구는 만남에 행복해하고, 누구는 나처럼 한껏 흥분해 있다. 그들의 표정에서, 행동에서 그들의 세계를 짐작해 보기도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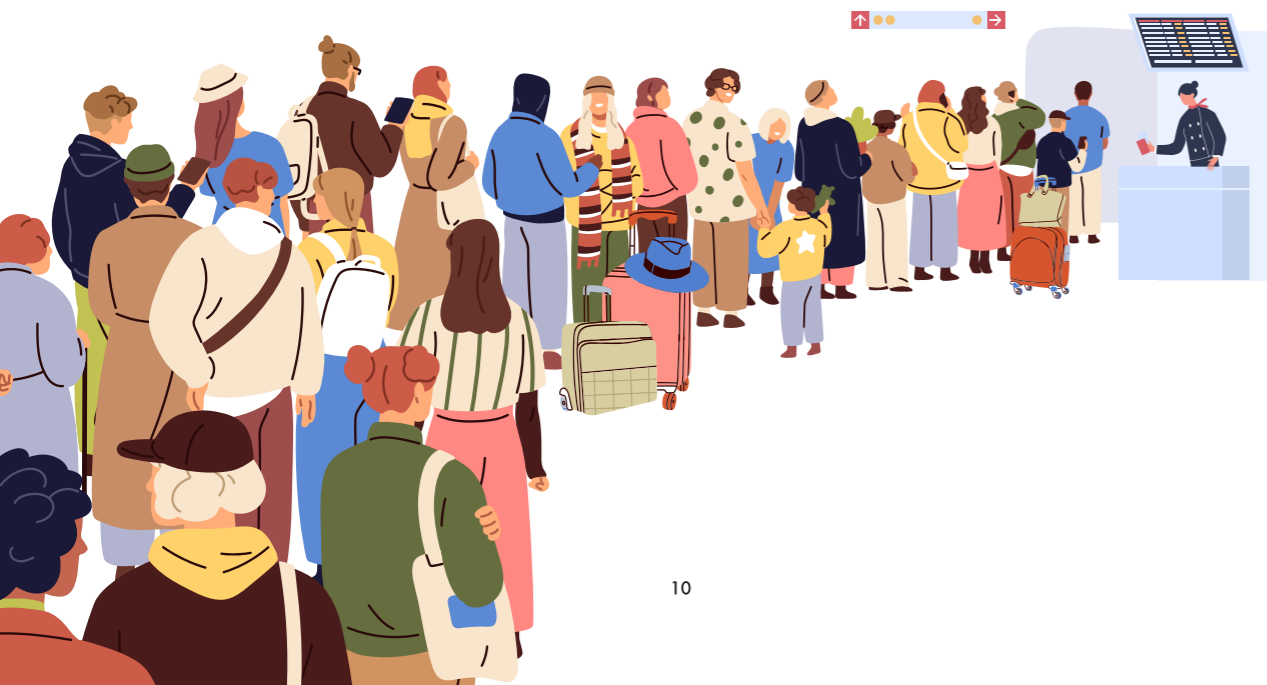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 여행을 위해 부산에서 출발,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늦은 오후였다. 공항은 한산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해외여행 길이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이기도 했다. 짐을 부치고 보딩패스를 받기 위해 해당 데스크로 갔다. 그런데 유독 그곳에만 줄이 엄청 길었다. 몇 줄로 늘어선 사람들 사이에 짐은 엄청 낫다. 눈으로 짐작컨대 한 사람당 가지고 갈 수 있는 양껏 짐을 가지고 가는 듯했다. 그 줄에서 한국인은 우리 둘뿐이었고, 우리는 각자 한 개의 캐리어만 가볍게 끌고 있었다.

나는 짐을 한 번 쳐다보고, 짐 주인을 한 번 쳐다보기를 반복했다. 한마디로 우리는 여행이었고 그들에게는 귀향이였다. 한 사람당 두서너 개의 짐을 부치고 보딩패스를 받는 줄은 느리게 느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 긴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불평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서로가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네들 말로 열심히 이야기하고, 활기가 넘쳤다. 큰 짐들 속에는 고향에 가서 사랑하고픈 물건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에게 주고픈 귀한 선물들이 가득 들어있을 것이다.

카트에 넘치도록 쌓아 올린 짐들이 사람보다 더 많다. 그 행렬을 보면서 문득 서부 개척 시대의 이주민들을 떠올렸다면 내가 소설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수천 마일을 마차와 말과 당나귀와 노새를 끌고 금광이 발견되었다는 캘리포니아를 향해 서부를 횡단했던 이민자들,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온 가족이 자신이 태어난 땅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옮겨갈 때, 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미지의 풍요로운 삶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기도 했을 것이며, 낯선 나



라에서 적응해야 하는 공포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 이들이 그들의 고향을 떠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으로 향했을 때의 희망과 공포를 생각했다. 이제 그들은 귀향한다. 그들이 가지고 나갈 짐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들이 꿈을 이루었는지, 못 이루었는지는 모르겠다. 크고 작은 결실을 보따리에 가득 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간다. 공항은 희망과 공포의 교차점이다.

6시간의 비행 끝에 그들에게는 익숙하고 그리웠던 땅에 도착했고, 우리는 이제 약간의 공포를 안고 낯선 땅으로 들어간다. 공항 밖을 나와 처음 맞닥뜨리는 것은 그곳의 공기다. 바람이다. 또는 빛이다. 지역마다 바람과 공기가 다르다는 것은 굳이 낯선 땅에 가지 않아도 교과서적으로 안다. 그러나 막상 부닥쳤을 때의 느낌은 교과서적인 것과는 또 다르다. 거기에는 약간의 공포, 두려움이라는 것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금은 두려운 눈동자로 낯선 무리들 속에서 갈 길을 찾는다. 그 사이에 발견한 내 이름 석 자. 뽀뽀뽀 적힌 영문 이름, 반갑다. 약속을 어기지 않고 숙소에서 날 데리러 왔다. 이제 나는 여권에 적혀있는 영문 이름으로 그들 속에서 한동안 지낼 것이다. ☺

글쓴이 김원희는 여행과 책을 좋아하는 부산에 사는 할머니다. '맑고맑은'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 「할매는 항상 부재 중」을 운영하고 있다. 「할매는 파리 여행으로 부재 중」, 「보름간의 스위스 여행」 등과 e-book 「고토여행 처음인가요?」, e-book 「보름간의 스위스 여행」 등을 펴냈다.



## 당신이 꿈꾸는 여행지의 모든 것 인도네시아 발리



“시는 읽는 사람의 것이다.”

-영화 <일 포스티노>

맥락은 다소 다르지만 여행도 떠나는 사람들의 몫이다.  
인생에 지쳐서, 반복되는 일상의 단조로움을 피해서,  
혹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이유로 여행을 떠난다.  
같은 여행지를 가더라도 떠난 이유에 따라 여행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떠나온 이유는 모두 다르지만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다시 올라탈 때는  
발리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찾았기를 바란다.

글. 송지현 여행작가





**골목길을 따라서 잘란잘란**

잘란잘란(jalan-jalan)은 인도네시아어로 '산책하다, 어슬렁거린다'라는 뜻이다. 우붓의 우거진 코코넛 나무와 빼곡히 들어선 야자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정글 한가운데 툭 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 발리의 면적은 5,780km<sup>2</sup>로 제주도의 약 3배 정도 크다. 꾸따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 2시간가량 걸린다는 소리에 처음에는 우붓에 꼭 가야 할까 싶었다. 그런데 막상 우붓에 도착해 새소리와 여유로운 분위기를 경험하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다. 번잡한 도심을 벗어나 이국적인 분위기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붓에는 꼭 한 번 가봐야 한다.

짱구, 스미낙과 달리 바다는 없지만 광활한 자연 속에서 치유받는 느낌 때문인지 유독 우붓에는 장기여행



1. 테갈라랑 라이스 테라스
2. 발리의 대표적인 수공예품들
3. 띠르타 엠폴 사원
4.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비건 카페
5. 우붓을 대표하는 재래시장
6. 우붓에서 체험하는 요가와 명상

**YOGA in Ubud**

우붓의 거리를 걷다 보면 편안한 차림으로 어깨 위에 요가 매트를 매고 있는 여행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요가가 처음이더라도 티셔츠에 반바지만 있으면 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붓의 자연 속에서 요가를 하고 잔잔한 바람이 부는 카페에 앉아 마시는 시원한 아메리카노는 분명 삶의 속도를 느리게 할 것이다. 요가는 16세기 인도네시아 내 이슬람이 다수 종교로 들어오고, 힌두교 승려들이 박해를 피해 발리로 피난을 오면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200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가 수련센터가 우붓에 늘어났다. 더 요가만, 래디언틀리 얼라이브, 인튜이티브 플로우, 우붓요가센터 등 우붓에서는 요가가 처음인 초보자를 위한 클래스부터 요가 선생님을 위한 마스터 과정까지 선택해 체험할 수 있다.

자가 많다. 우붓의 지명도 '치유(Ubad; 우뱃)'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따스하다 못해 뜨거운 햇빛 아래 잘란잘란 걷다 보면 어느새 모든 걱정이 사라져 있을 것이다.



**과도에 흠뻑 빠져 발리를 즐기는 방법**

비치클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클럽과는 다르게 해변을 끼고 있는 레스토랑 겸 바를 말한다. 주로 수영장과 바다가 이어져 있는데 낮과 밤의 분위기가 다소 다르다. 낮에는 가족단위로 찾는 여행객이 많다. 수영 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데이베드에 몸을 뉘면 모



든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다. 비치클럽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일몰 시간이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붉은 해가 넘어가는 여름밤의 모습은 '여행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낮에는 신나게 수영을, 해가 진 이후에는 신나는 노래와 함께 맥주 한잔 기울일 수 있는 게 비치클럽의 매력 아닐까? 발리 곳곳에 비치클럽이 있지만 쟁구 및 스미낙 지역의 비치클럽이 가장 유명하다. 포테이토헤드, 핀스비치클럽, 라브리사 등 비치클럽에서는 뮤직페스티벌과 파티도 자주 열린다.

**오롯이 파도를 타는 재미, 서핑**

최근 국내도 서핑이 많이 보편화되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국내에는 서핑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다. 발리가 서퍼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파도를 타기 좋은 바다도 많고, 서핑을 배우는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원데이클래스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서핑 스폿에는 암묵적인 순서가 정해져 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파도를 타는 서퍼들이 있어서 처음 등장한 서퍼는 순서를 기다렸다 타는 것이다.



1. 일몰이 아름다운 발리의 해변  
2. 쟁구 및 스미낙 지역의 비치클럽  
3. 서퍼들의 천국 발리  
4. 울루와투 사원에서 바라본 절벽



**어쩌면 더 맛있을 지도, 비건 음식**

발리는 비건(채식주의자)이 여행하기 좋은 도시 중 하나다. 지역 곳곳에서 비건 메뉴를 따로 갖춘 식당을 찾아볼 수 있고, raw food부터 글루텐프리 식사까지 따로 물어볼 필요 없이 메뉴판에 재료가 꼼꼼하게 표기되어 있다. 특히 우붓과 쟁구에 다양한 채식전문식당과 카페가 많다. 비건이 아니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이슬람교도가 대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발리는 유일하게 발리힌두교가 다수인 지역이라 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요리한 맛있는 음식이 많다.

**발리 최남단의 절벽 사원, 울루와투 사원**

울루와투 사원은 발리의 7대 명소이자 발리를 대표하는 사원 중 하나다. 발리 로컬들은 Pura Luhur Uluwatu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명 원숭이 사원으로 불리기도 한다. Ulu는 '땅이 끝나는 곳' watu는 '바위'라는 뜻으로 울루와투 사원은 발리 최남단에 위치해있다. 이곳은 약 1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원으로, 11세기경 힌두교 승려인 Empu Kuturan에 의해 지어졌으며, 16세기경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증축되었다.

울루와투 사원은 해발 약 75m에 위치해 있다. 인도양과 만나 오묘한 에메랄드빛을 자아내는 바다와 그 위에 자리한 사원을 보면 왜 이곳에 사원을 지었는지

알 것 같은 마음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의 경관이 아름다워 한참을 서 있었던 곳이다. 방문 시 주의할 점은 울루와투 사원 내 원숭이들이다. 여행객의 휴대폰, 목걸이, 선글라스 등을 탐내기도 해서 고가의 소지품은 빼고 입장하는 것이 좋다.

**글쓴이 송지현**은 20살 이후로 인생 여행지를 찾아 수많은 도시로 여행을 다녔다. 발리에 가고 싶어 정보를 찾아 마음에 쏙 드는 책이 없는 것을 계기로 『지금, 발리』를 쓰게 되었다. 회사와 여행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를 만나는 것을 즐기는 맥시멀리스트 타입의 여행자다.



# 발리 여행의 시작 응우라라이 국제공항



‘Selamat Datang’ 슬라맛 다땅, 인도네시아어로 ‘환영합니다’라는 뜻이다.  
발리 공항에 내리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문구로 약 7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여행을 실감하게 한다.  
한국에서 직항을 타고 발리 공항에 도착하면 현지 시간으로 약 11시가 넘어가는 늦은 시간이지만  
앞으로 펼쳐질 여행에 대한 기대로 피곤은 사라진다.

글. 송지현 여행작가



##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세 가지 방법

###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

여행자들에게 그 도시의 첫인상으로 각인되는 건축물이 바로 공항이다. 발리 여행의 관문이 되는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은 연간 약 2,300만 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공항으로 발리의 주도인 덴파사르의 이름을 따서 덴파사르 공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응우라라이’라는 이름은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의 영웅 I Gusti Ngurah Rai(이 구스티 응우라라이) 장군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발리에서 태어난 응우라라이 장군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기 위

해 발리 서남쪽에서 결전을 벌이다 전사하였고, 이후 응우라라이 장군의 이름을 따서 발리 국제공항의 이름을 짓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에는 총 30여 개의 국제공항이 있는데 응우라라이 공항은 수도 자카르타의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공항이기도 하다. ‘L’모양의 국제선 터미널은 발리 스타일의 파도 모양으로 총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규모는 아니지만 카페 및 식당, 라운지, 면세점이 구비되어 있어 탑승 전 간단한 식사가 가능하다.

### 약명 높은 발리의 입국심사

발리의 입국심사는 꽤 오래 걸린다. 팬데믹 이전 일일 항공편이 약 700여 편이 넘었으니 비행편이 몰려드는 시간에 따라 입국심사가 최대 3시간까지 걸리기도 하는데 현재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발리 당국에서도 노력 중이다. 참고로 가장 바쁜 시간대는 오후 1시 ~ 3시, 오후 8시 ~ 10시 사이다. 발리를 찾는 연간 관광객 순위는 2019년 기준 호주, 중국, 인도, 영국, 미국 순이었고, 2022년의 경우 호주, 인도, 싱가포르, 영국, 미국 순이었다.

### ① 택시, 그랩, 고젝

서울 및 수도권과 달리 발리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다. 지하철, 공항철도와 같은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주로 택시를 이용하고 차선책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발리 공항에 위치한 (Airport Taxi Counter) 택시 카운터로 이동하면 지정된 택시비 가격으로 목적지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중간중간 개인이 운영하는 택시에서 호객행위를 많이 하니 탑승 전 주의하는 게 좋다. 그랩 혹은 고젝은 Grab Lounge에서 이용 가능하다.

### ② 픽업 서비스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픽업 서비스를 예약하는 것이다. 클룩과 마이리얼트립과 같은 OTA를 이용해 미리 픽업 서비스를 예약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더욱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보통 스미낙 지역의 호텔까지의 요금은 한화 약 150,000 IDR(13,000원) 정도다. 픽업 서비스는 프라이빗 한 서비스로 기사님이 공항에서 숙소까지 태워다 준다. 예약을 하면 도착 터미널 내 출국장에서

운전기사가 탑승객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대기하고 있다.

### ③ 버스

트랜스 사르바기타(Trans sarbagita)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있다. 발리공항에서부터 꾸따, 르기안, 누사두아 등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있고 우붓의 경우, 꾸따 혹은 스미낙에서 내려 다른 버스나 택시를 타야 한다.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선이 아니라 국내선 터미널로 이동해야 하고 금액은 3,500 IDR ~ 7,000 IDR 내외다. 🚗



## 낮섬 속에서 걸어 올린 행복하고 정직한 삶



사하라 사막의 도시 모로코.  
허름한 골목길을 걷던 남자가 이발관에 들어선다.  
나이 지긋한 이발사에게 'BTS 스타일'을 주문하고 잠시 후,  
밤들처럼 바짝 깎인 머리에 망연자실한  
유튜버 채코제의 얼굴이 클로즈업된다.  
76만 뷰를 기록한 이 에피소드는  
그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  
일단 떠나왔다면 두려움 없이 부딪칠 것.  
그리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결코 웃음을 잃지 말라는 전언과도 같다.

글. 박채림 사진. 유승현

얼마 전 구독자 60만을 달성했다.

어떻게 지냈다.

2주 전 미국 캠핑가 여행에서 돌아왔다. 오래전부터 캠핑카를 타고 미국을 횡단해보고 싶었다. 미국에 가기 전, 방글라데시를 여행하다 보니 큰 나라의 인프라와 도시 풍경에 마음이 이끌리던 참이기도 했다.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듯 다양한 사람들과 만났고 우여곡절도 많았다. 실리콘밸리에선 구글 본사에 초청받기도 했다. 큰 나라는 실컷 경험했으니 이제 다시 오지로 떠나볼까 한다. (웃음)



3년 전 네팔에서 첫 영상을 올렸다.

어떻게 여행 유튜버의 길로 접어들었나.

20대 초반부터 여러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며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인지 이해하며 보냈다. 누구나 그렇듯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 몸도 마음도 지칠 즈음, 태국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초대받아 방콕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온 친구들과 어울리며 며칠을 지냈다. 그리고 한국에 가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왔다. 3년 즈음 방콕에서 터를 잡기 위해 일하며 사업을 준비했는데, 사기를 당했다. (웃음) 수중에 남은 돈은 없고, 한국에 이대로 돌아가자니 답이 없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500만 원으로 세계여행이나 떠나보자 결심하고 네팔로 간 거다. 처음엔 외국인 여행자와 교류할 생각으로 'Channel Korean Jay'라는 이름을 지었다. 여행 5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점차 한국인 구독자들에게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채코제'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여행 유튜버의 길로 접어들었다.







바야흐로 여행 유튜버의 시대다.

채코제 채널만의 정체성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여행을 떠나 현지인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한다. 우연한 만남을 통해 벌어지는 일이 재미있고 그래서 여행을 계속하는 측면도 있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역지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일은 지양하려고 한다. 그때그때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여행을 떠나고, 누구와 만나건 어떤 상황에서건 마음을 열고 소통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생겨나는 색다른 풍경과 이야깃거리를 구독자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다.



..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outfits 나 자신에게 집중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일이 생기고,  
 낯선 풍경 앞에 나를 던져놓으며  
 시시각각 변하는 마음에 귀 기울이는 일.  
 익숙함으로 가득 찬 일상에서는  
 좀처럼 얻기 어려운 경험이다.  
 유튜버 채코제는 여행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동시에,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고 말한다.  
 공항을 통해 어른가 향하는 순간,  
 그렇게 우리는 나은 삶의 가능성 하나를  
 얻게 되는 셈이다.  
 ..

그동안 다녔던 여행지 중 기억에 남는 곳이 있나?

나라마다 매력이 달라 가장 좋았던 곳이 자주 바뀌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떠나기 어려워진 미얀마가 그렇다. 미얀마 중동부에 자리한 시포(Hsipaw) 지역을 트래킹 한 적이 있는데 정말이지 산골짜기에 자리해 있다. 히말라야에서도 전기는 들어왔었는데, 그마저도 없어서 해가 뜨면 일하고, 지면 다들 일찍 잠든다. 우리나라의 아주 오랜 옛 시골 풍경이 그런 모습일까? 나무 태우는 냄새와 평화로운 숲의 풍경, 고양이랑 놀다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던 기억이 새삼 자주 떠오른다.

여행 유튜버로서 '어떻게 그렇게 계속

여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듣지 않나.

처음 세계여행을 떠날 때는 거의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심정이었다. 딱히 돌아갈 곳이 없었다. 가진 돈 중 100만 원을 털어 카메라를 사고, 남은 500만 원으로 비행기에 오르며 이 길이 아니면 한국에선 뭘 하던 평범하게 살자고 결심했다. 인도에선 500원어치 밥 사 먹고, 몸 누일 곳이면 베드버그가 있어도 잤다. 유튜브 채널이 조금씩 알려지며 수익이 생겼고, 하루 치 방값만 벌어도 계속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벽차더라. 그렇게 점차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수익이 생기고, 호텔에 묵게 되고, 결국엔 비행기표도 샀다. 끊임없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모두 좋은 조건에서 계속 떠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떠나겠다는 결심이 길을 열어줄 때가 있다.

어딘가로 떠나는 이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돈'과 '용기'라고 생각하지만, 인천공항까지 온 여행자라면 이미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열린 마음이 아닐까? 개인적으



**유튜버 채코제는** Channel Korean Jay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크리에이터다. 2020년 4월까지 세계여행을 하다 팬데믹 사태로 멕시코를 마지막으로 귀국했고, 옥탑방 브이로그 국내 여행 콘텐츠를 만들었다. 현재는 유럽을 거쳐 방글라데시, 최근에는 미국 캠핑카 트립까지 다시 여행을 이어가며 구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로는 내가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여행을 하고 보니 나를 포함한 한국 사회는 생각보다 보수적인 곳이었다. 국경을 넘어 어딘가에 도착한다면, 그때부터는 한국인의 시선은 내려놓고 그 나라 그대로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사기를 당할 위기에 놓이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너무 좌절하거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시하고 내 갈 길 가려는 마음도 필요하다. 그동안의 자신은 잠시 내려두고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

**채코제에게 인천공항이란 어떤 공간인가.**

두 가지 설렘으로 다가온다. 어딘가로 떠날 때 느끼는 떨림과 돌아올 때의 벅찬, 여행 유튜버로서 수없이 많은 공항을 거치지만, 비행기가 착륙할 때 느끼는 안도감은 오롯이 한국인으로서 인천공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인천공항이 시야에 들어오면 비로소 집에 왔다는 느낌이 든다. 세계 어느 공항과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시설과 친절, 인프라 덕분에 조금 더 자랑스러운 집이랄까?

**앞으로 꿈꾸는 여행이 더 남아있나?**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가 많다. 최근 스페인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중남미 여행에서 요긴하게 쓰일 것 같다.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아직 가닿지 못한 곳까지 열심히 구석구석 떠나고자 한다. 덧붙여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 구독자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드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더욱 직접적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여행을 떠나고 싶다. 여행을 분명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여행을 통해 내가 바라는 행복을 깨달았고, 수많은 사람과 소통하며 삶을 배운다. 이런 경험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



## 알뜰살뜰 소비자 체리슈머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체리슈머들이 등장하고 있다.

‘체리슈머’란 케이크 위에 맛있는 체리만 빼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체리피커’에서 변화한 단어로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알뜰하게 소비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글. 이수진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 체리슈머의 의미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으로 소비 심리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세계 경제 전체가 현대판 보릿고개를 넘는 상황을 맞아 소비자들은 비용 대비 효용이 뛰어난 것만 쏙쏙 골라 합리적으로 구매한다. 흔히 구매는 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챙겨가는 소비자를 ‘체리피커(Cherry Picker)’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진일보하여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알뜰 소비 전략을 펼치는 소비자를 ‘체리슈머(Cherry-Sumer)’라고 명명한다. 불경기에 ‘짠테크’ 소비가 확산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똑똑하고 셈에 능한 요즘 소비자들이 나누고 쪼개는 실속 소비는 과거의 불황 때와는 다르다.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었다는 점은 닮아있지만, 자신의 소비지출을 주도적으로 관리(Managing) 하고 편집(Editing) 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기세가 느껴진다.

무조건적으로 소비를 포기하기보다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방법을 찾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소비를 즐기며 극복한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싶을 때에는 한정된 자원을 낭비 없이 최대로 활용하고자 적극적인 소비전략을 사용



하기도 한다. 더불어 이들의 소비행태에 날개를 달아주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이 등장하며 체리슈머를 적극 지원하는 소비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똑똑하고 셈에 능한 요즘 소비자들은 함께 나누고 쪼개며 극한의 합리적 소비를 지향한다.

### 체리슈머의 세 가지 소비전략

체리슈머는 먼저 ‘조각전략’으로 실속을 챙긴다. 기존의 소비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맞춰서 구매하기에 소포장과 샘플키트가 인기를 끈다. 체리슈머는 다다익선(多多益善)이 아닌 소소익선(少少益善, 적으면 적을수록 좋음)이다. 샘플키트를 구매해 다양한 신제품을 소소하게 즐기기도 한다. 특히 뷰티 업계는 이러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트라이얼 키트나 샘플 키트를 판매한다.





다음으로 ‘반반전략’으로 함께 모여 절약을 도모한다. 공동구매를 즐기는 것은 물론이고, 배달비와 같이 특정 요금을 함께 부담할 사람을 찾아 나선다. 반반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체리슈머들은 SNS나 중고시장에서도 흔히 만날 수 있다. 이들은 ‘0.5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SNS나 중고거래 앱에서 대량 상품을 소분하여 재판매하거나 아예 소분된 상품을 구매한다. 메모지, 향수, 세제 등 거래하는 물품도 가지각색이다.

마지막으로 ‘말랑전략’을 통해 유연한 계약을 찾는다. 언제든지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구독서비스는 물론이고, 초단기 예적금이나 유연한 환불정책의 상품을 찾는다. 장기 계약의 노예가 되어 매달 일정 비용을 지출하느니,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계약해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전략이다. 언제 어디서든 관둘 수 있는 유연한 계약을 통해 소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며 ‘지출의 자유’를 만끽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연한 계약 조건은 장기계약에 비해 추가 비용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체리슈머는 유연성을 위해서라면 이조차도 마다하지 않는다.

오히려 추가적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계약의 재량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체리를 찾는 이유

체리슈머가 등장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무엇보다도 고물가다. ‘YOLO(You Only Live Once)’와 ‘플렉스(과시)’를 외치던 젊은이들이 하루아침에 ‘실속소비’에 눈을 뜬 것은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불안에 대한 실제적 위협 때문이다. 2021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분석에 따르면, 15~29세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지수는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더불어 체리슈머 트렌드는 1인 가구가 주류가 되면서 작고 유연한 소비를 선호하게 되는 구조적 변화에도 기인한다. 사실 저비용 고효율의 소비는 대가족에서 실천하기가 더 쉽다. 가정 살림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출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쟁여두기보다는 작고 유연한 소비를 즐겨왔던 1코노미 소비자들이 실제적 위협으로 다가온 경기 불황을 만나 ‘체리슈머’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 체리슈머의 시사점

체리슈머를 불황 속 꿈을 부리는 소수 특이한 소비자라면 바라보았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 공짜만 바라는 블랙컨슈머로 오인하거나 싸게 사기에 급급한 체리피커 소비자라고 간과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퍼주기식 할인도 해답은 아니다. 작고 유연한 소비를 원하는 체리슈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똑똑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비자가 소비의 주체성을 갖고 시장에서 중횡무진 활약하는 시대가 되었다. 현대판 보릿고개를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체리슈머는 실속을 챙기면서도 소비자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매너소비자’의 덕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불황으로 나라 경제 전체가 새로운 모색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소비자와 사업자가 힘을 합쳐 모두 공생 공영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할 때다. ☺

글쓴이 이수진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에서 소비문화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트렌드코리아』, 『더현대 서울 인사이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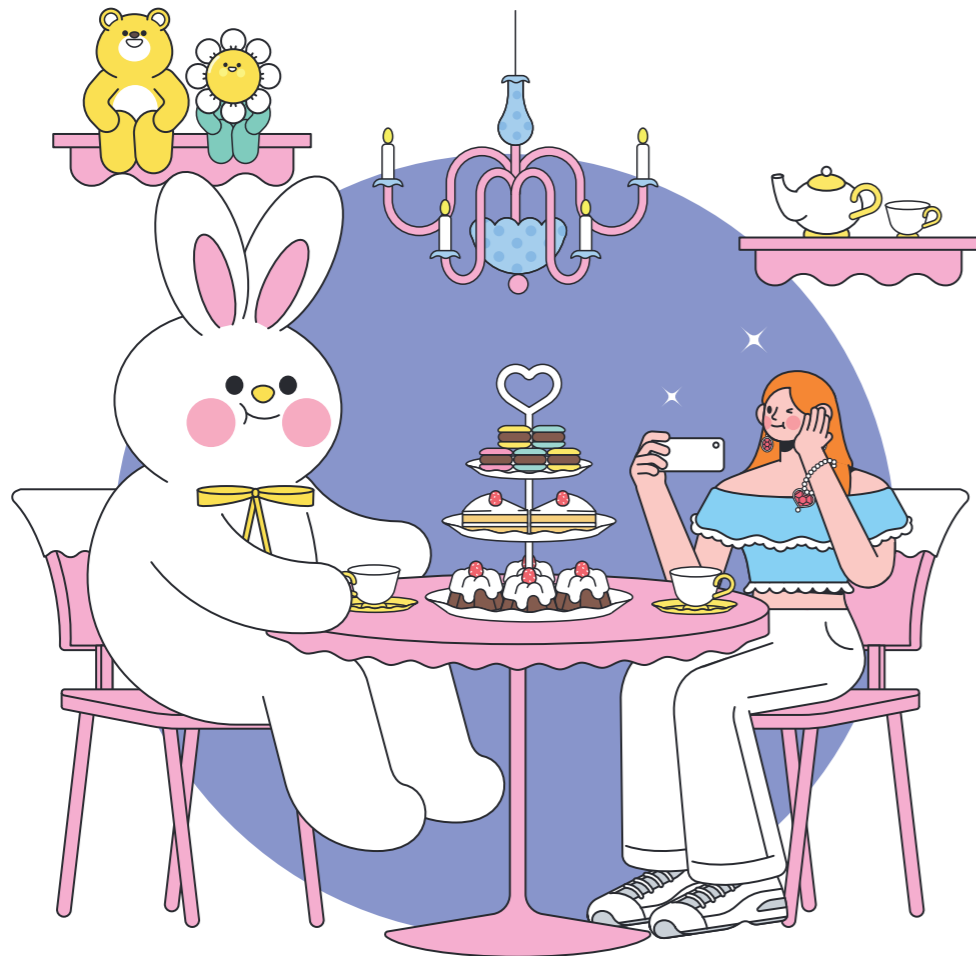


## 어른이지만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네버랜드 신드롬



사회가 요구하는 특정 연령대에 맞는 모습을 거부하고  
나이보다 젊고 개성 있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어른들이 많아지고 있다.  
현실도피를 대변하는 '피터팬 신드롬'이 아니라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고 젊게 살아가려는 모습으로 해석해  
우리는 이를 '네버랜드 신드롬'이라 한다.

글. 이수진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 네버랜드 신드롬의 개념

요즘 '어른아이'들이 많아졌다. '아이언맨' 캐릭터가 돋보이는 빨간색 핸드폰 케이스를 들고 다니는 중년 남성, '헬로키티' 액세서리를 아무렇지 않게 들고 다니는 중년 여성, 가수 임영웅의 영상에 '주접' 댓글 다는 것을 하루의 낙으로 생각하는 시니어 영웅시대(임영웅 팬클럽)도 쉽게 볼 수 있다. '어른'의 모습이라 생각했던 전형에 맞지 않는 스스로를 '어른이(어른+어린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영국의 작가 매튜 배리의 소설 『피터팬과 웬디』의 주인공 피터팬은 나이를 먹지 않는 마법에 걸려 영원히 아이의 모습으로 사는 인물이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도 심리적으로 아이 상태에 머무르려 하는 퇴행적 심리상태를 '피터팬 신드롬'이라 부른다. 그가 사는 '네버랜드'는 피터팬처럼 늙지 않는 아이들이 모여 자유롭게 모험을 즐기며 사는 곳이다.

늙지 않고 아이처럼 살고 싶다는 욕망은 이제 아주 보편화됐다. 우리 사회의 유년화는 단지 일부의 취향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사고방식(Way of Thinking)' 나아가 '생활양식(Modus Vivendi)'이 되고 있다. 피터팬과 친구들이 모여 사는 나라, 네버랜드의 이름을 따서 우리 사회에 나이 들기를 거부하는 피터팬들이 많아지는 트렌드를 '네버랜드 신드롬'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 네버랜드의 세 가지 신드롬

나이 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네버랜드의 징후(Syndrome)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돌아감(Return)**,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2022년 3월, 전국적으로 품질 대란을 일으켰던 포켓몬 빵은 잠재적 어른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90년대에 처음 출시되어 당시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제품을 그 시절 감성을 살려 재출시했다. 그 시절을 경험한 성인들에게는 어린 시절 향수를,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며 10대부터 40대까지 폭넓게 인기를 끌었다.





# NEVER LAND



**둘째는 머무름(Stay), 지금 상태에서 더 나이 들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연공 서열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한국 사회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자연히 조직의 직급이 실무자에서 관리자로, 나아가 의사결정권자로 '윗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승진을 당연히 따라야 할 수순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승진에는 권한 확대, 임금 인상, 사회적 인정이라는 보상이 따르지만, 그만큼 무거워지는 책임과 고용의 불안정이라는 희생도 함께 감수해야 한다. 승진해서 '위라벨'이 희생된다면, 차라리 평사원으로 지내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셋째는 놀(Play), 아이들처럼 재밌게 놀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최근 유행한 '무지출 챌린지'는 놀이화의 대표적 사례다. 교통비를 지출하는 대신 걸어 다니다거나, 외식 대신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하루 지출을 0원으로 만드는 도전과제를 이어가는 것인데, 이제까지 소비자들이 불경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과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절박한 대처가 아니라 더 야무지게 '퀘스트'를 돌파하기 위한 공략집을 찾는 게임 플레이어처럼 그 과정을 놀이화하여 즐겁게 극복하는 것이다.

## 네버랜드 신드롬의 등장 배경

네버랜드의 여러 신드롬들을 해석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다.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 어린 시절 향수에 젖으며 위안을 얻는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고, 팬데믹과 같은 절대 불안을 안고 집에 머무르다 보니, 성인 장난감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고 볼 수도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꾸준한 추세로 사회가 유년화되고 있는 배경에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작용하고 있다. 바로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됐다는 것이다. 인생의 시간표가 늘어나면서 아이와 어른의 단순한 이분 구조였던 인간의 삶은 청년-노년으로, 이후 청년-중년-노년으로, 다시 21세기부터는 '청년이행기(Emerging Adulthood)'-'연소노인(Young-old)'-'고령 노인(Old-Old)'으로 새로 정의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활동에서 은퇴하는 '진짜' 노년은 줄어들고, 일하고 즐기는 청년기가 늘어나며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애과정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어른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평균적인' 삶의 모습이 실종되었다.

## 네버랜드의 시사점

2025년이면 대한민국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네버랜드 신드롬을 앓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역설이다. 나이 들기를 거부하는 네버랜드 사회가 여러 미성숙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또한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던져준다. 국민들의 생물학적 나이가 많아진다 해도 시장 및 사회 분위기가 활기를 잃지 않고 역동성을 떨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소비의 피터팬화는 개인에게도 장점이 많다. 불안이 팽배한 사회 속에서 어린 시절의 향수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어른의 삶과 무관한 재미는 어른으로 살며 얻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되어준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이미 영원한 소년에 머무를 수 없고 어른으로의 여정에 발을 디뎠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제는 분명해진다. 청년의 활기는 극대화하면서도, 유아적 미성숙의 징후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네버랜드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이 질문에 답하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 🍀





## 한 장의 그림으로 보는 영화 〈맥스 달튼, 영화의 순간들〉



영화 속 장면이 일러스트로 재탄생되었다.

파스텔 톤의 몽환적인 색감과 섬세하고 정교한 구조 속에 동화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맥스 달튼, 영화의 순간들〉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화의 순간’을 만나보자.

글. 이주안 자료제공. 63아트

INT. GASTRY - OUTSIDE CONTROL ROOM - REACTOR SEAT

LUKE leaps from the extreme end of the gantry with his forearms under his left armpit. There is nowhere else to go.

VADER

I am your father.



EXT. DAGOBAH SWAMP - DAY

YODA

Do. Or do not. There is no try.



### 신 스틸러 일러스트레이터

뉴욕 타임스가 “그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신 스틸러’다”라고 평한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그래픽 디자이너 맥스 달튼의 개인전이 63아트에서 진행 중이다. 맥스 달튼 개인전은 지난 마이아트뮤지엄에서 5만여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전시로 이번 63아트 전당대에서 새로운 전시 구성과 신작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맥스 달튼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활동 중인 일러스트레이터로 20년 동안 영화, 음악, 책 등의 대중문화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작업을 이어왔다. 특히 뛰어난 색감과 미장센으

로 국내에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웨스 앤더슨 감독의 아트북 <웨스 앤더슨 컬렉션: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작업했고,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맥스 달튼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도 <문라이즈 킹덤>, <판타스틱 Mr.폭스>, <다즐링 주식회사> 등 웨스 앤더슨 감독이 만든 영화라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그림 속에 담았다. 그는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들 외에도 <스타워즈>, <이터널 선샤인>, <쥬라기 공원> 등 SF영화, 로맨스, 액션 등 80~90년대를 풍미했던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모티프로 해 섬세하고 정교한 구조 속에 녹여냈다.





**봉준호 감독 '섹션' 최초 공개**

이번 전시에서는 <기생충> 작업으로 시작된 인연으로 봉준호 감독의 <괴물>, <옥자> 최근작을 포함해 <마더>, <설국열차>, <살인의 추억> 등 63아트 전시만을 위한 신작 일러스트와 함께 봉준호 감독 완전체 섹션이 최초 공개된다. 또한 웨스 앤더슨 감독의 최신작 <프렌치 디스패치>의 컬렉션 북 완결판을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선공개한다. 이번 전시의 핵심은 원작 장면 그대로가 아니라 맥스 달튼의 해석을 숨은그림찾기 하듯 들여다보게 하는 세세한 묘사와 기발한 상상에 있다. 봉 감독의 천만 영화 <괴물>의 경우 괴물의 뱃속에 강두(송강호) 가족이 밥을 먹는 극중 판타지 장면을 배치했다. <기생충> 박 사장(이선균)의 저택 단면도는 단연 백미다. 파국이 벌어지기 직전의 집안 풍경을 등장인물 간 계급 격차가 한눈에 드러나게 묘사했다. 지상에선 부부인 걸 감춘 가정부 충숙(장혜진)과 운전기사 기택(송강호)이 박 사장 부부의 시중을 들고 있고, 그 아래로 지하실에 기생하는 문광(이정은) 부부의 모



습이 담겼다. 흙 속에 묻힌 개의 뼈와 지층 등은 맥스 달튼이 상상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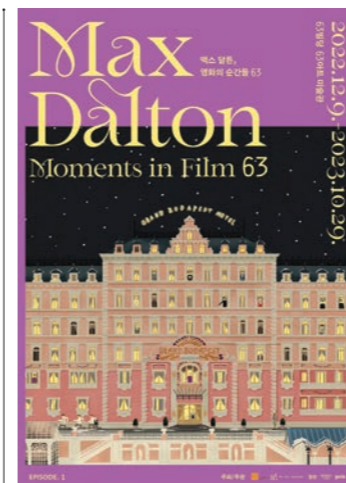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여러 주제별 영화 모티프로 한 주요 인기 작품뿐만 아니라 '비틀스'와 '밥 딜런'과 같은 음악적 거장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린 LP 커버와 동화책 일러스트, 화가의 시리즈 등 작가의 고유한 예술세계를 소개하는 다양한 작품 104여 점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일러스트 속 기발한 상상 세계**

전시는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제1막 영화의 순간들'에서는 지난 반세기 영화 역사에서 손꼽는 다양한 장르의 명작을 재구성한 일러스트 작품을 소개한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어벤져스>, <티파니에서 아침을> 등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영화를 작품을 통해 당시의 감정을 되새겨볼 수 있다. '제2막 웨스 앤더슨 컬렉션'은 웨스 앤더슨의 작품을 오마주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실과



맥스 달튼은 일러스트레이터이자 화가이며, 이따금 뮤지션이나 작가로 활동한다. '웨스 앤더슨 컬렉션'의 일러스트레이션과 대중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여러 작품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는 50년대 만화에서부터 애니메이션까지 섭렵하며, 지난 20년 동안 독특한 일러스트 스타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다. 특히 197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영화들을 주제로 하여 보는 이들에게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영화의 배경과 인물들을 한 화면에 압축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여 숨은그림찾기 같은 재미를 준다.



**전시장:** 63빌딩 60층 63아트 미술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전시기간:** 2022.12.09. ~ 2023.10.29.(연중무휴)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7시(입장 마감: 오후 6시 30분)

환상 사이를 달콤한 색채로 표현하는 웨스 앤더슨 감독의 세계관이 독특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맥스 달튼의 손끝과 어우러져 있다. '제3막 맥스의 순간들'은 작가의 작품 세계를 형성하게 한 맥스 달튼의 오랜 취향과 영감이 담겨 있다. 피카소, 모네 등을 포함한 여섯 거장의 예술 세계를 <화가의 작업실> 시리즈에 담았다.

평소 영화를 즐기고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은 맥스 달튼의 작품을 눈여겨보자. 대중들에게 익숙한 영화 속 장면이나, 유명한 뮤지션이 어떻게 맥스 달튼만의 색감, 특유의 구도, 그리고 세계관으로 그려졌는지 발견해보는 재미를 느끼며 작가의 고유한 세계를 탐험해 볼 수 있다. 특히 맥스 달튼의 작품은 내용을 따라가느라 우리가 놓쳤던 영화 속 디테일을 만나게 해주며 다시 한번 영화의 추억을 되살려준다. 맥스 달튼이 사랑한 영화의 순간이자, 그 시절 우리가 사랑한 장면이다. 🍷



## 황금물결 일렁이는 인천공항 하늘정원



봄꽃 가득한 산책로를 따라 봄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다.  
따뜻해지는 날씨에 하나 둘 멀리 떠날 생각부터 하는 지금,  
바람 씩기도 좋고 SNS에 올리기도 좋은 봄나들이 명소를 소개한다.

글. 이주안 사진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게다가 모든 여행이란 공간적 아슬너까,  
한 속성에서 다른 속성으로 가는 것은 마치  
건너편에 있는 농장으로 가는 것만도 같은 거죠,  
당신이 이 방에 들어왔을 때 당신은 하나의 공간 여행을 한 것이지요.”

- 보르헤스, 『세익스피어의 기억 - 지친 자의 유토피아』





## 인천공항에서 만나는 봄의 물결



아르헨티나 작가 보르헤스의 소설 작중 인물의 말처럼, 여행이란 단순히 공간 이동이라고 정의한다면 일상의 공간을 벗어나는 지점에서 여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어떤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이 아마도 여행이리라.

비싼 돈 들이지 않고 공항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비행기를 타는 여행이 아니라 비행기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인천공항 제1터미널 부근에 위치한 하늘정원 공원은 활주로처럼 펼쳐진 들판에 답답한 마음을 털어버릴 수 있는 공간이다. 봄바람으로 마음이 일렁이는 요즘 ‘인천공항 하늘정원’이 노랑게 물든 유채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물들이고 있다. 오는 5월 19일부터 약 3주간 무료로 개방하는 ‘유채꽃밭’은 온통 봄의 기운으로 가득하다. 이곳에서라면 봄의 낭만에 꼭 빠져볼 수 있다. 무엇보다 하늘정원은 해마다 무료 개방되는 꽃밭이라 언제든 부담 없이 찾을 수 있으며 머리 바로 위로 날아오르는 비행기가 아름다운 꽃밭 풍경과 어우러져 여행의 설렘까지 더한다. 또한 해 질 무렵이면 영종도의 붉은 노을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 데이트 코스로 손색이 없다.



## 하늘과 맞닿은 봄날의 추억



인천공항 하늘정원은 총 38만㎡에 달하는 정원으로 봄에는 유채꽃을, 여름에는 높이 5m에 달하는 아름드리 느티나무의 녹음을, 가을에는 넘실대는 은빛 억새 물결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곳곳에 설치된 바람개비나 예술작품, 그리고 발걸음을 쉬어갈 수 있게 하는 흔들의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진 찍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 관광객들뿐 아니라 사진을 취미로 하는 출사객들도 종종 찾는 곳이다. 이곳은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바람의 언덕’과 친환경 원목그네가 자리 잡은 ‘초화언덕’에 하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높이 3m의 데크시설물 ‘하늘걷기’가 설치되어 있어 하늘걷기 위를 걸으면 발아래로는 노랑 유채꽃을, 머리 위로는 가깝게 지나가는 비행기의 모습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자가용 이용자라면 공항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오성산 자락의 '오성산 전망대'도 둘러보자. 공항 활주로 주변에는 해수면에서 52m가 넘는 산과 건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성산 전망대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곳에서는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관이나 육중한 비행기가 활주로에 '쿵' 하면서 내려앉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하늘정원



하늘정원이 봄에는 유채꽃으로 채워진다면 매년 가을이면 분홍빛 코스모스가 마치 눈발처럼 펼쳐진다.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코스모스가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물결을 이루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36만㎡에 달하는 정원에는 코스모스 외에도 은빛 억새와 핑크 물리까지 더해져 계절의 정취를 느끼기 좋다. 그야말로 사계절 내내 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다. 또한 하늘정원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어서 라이딩 장소로도 손색이 없다. 20km 길이의 자전거도로는 국제업무지역과 화물터미널 등을 거치며 바다와 하늘, 항공기의 이착륙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코스다.

살랑살랑 봄바람이 대지를 채우며 봄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봄의 끝자락에서 봄나들이를 계획 중이라면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인천공항 하늘정원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면 어떨까. 지금 하늘정원은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유채향으로 가득하다. 이곳에서는 아무렇게나 찍어도 인생샷을 건질 수 있다. 눈길 두는 곳마다 온통 꽃이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5월은 유채꽃이 만개한 하늘정원이 답이다. 🍷

### TIP

#### ① 주의할 점

항공안전법(활주로 등 공항시설을 파손하거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항공기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이 금지한 연날리기, 드론 띄우기 비행기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과 공항지역이 국가보안시설임을 감안, 무단 사진 촬영 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으니 방문 시 주의하기 바란다.

#### ② 하늘정원 가는 방법

- 공항철도 공항화물청사역에서 하차한 후 국제업무단지 방향 무료 셔틀버스를 탑승하여 하늘정원 임시정류소에 하차(임시정류소이므로 하차벨 누르기)
- 공항철도 화물청사역 2번 출구에서 자전거 도로 이용(도보 약 30분, 자전거 약 10분)
- 제1여객터미널 3층 3번, 12번 출구에서 공항화물청사역 방향 무료 셔틀버스를 탑승하여 하늘정원 임시정류소에 하차(임시정류소이므로 하차벨 누르기)
- 차량 방문객을 위하여 입구에 약 400면의 주차장 보유

#### ③ 하늘정원 개장 시간

09:30~18:00(마지막 입장 17:30 주말, 휴일 포함)





## 가상세계의 헬스장 메타버스 트레이닝



메타버스가 이제 피트니스의 영역까지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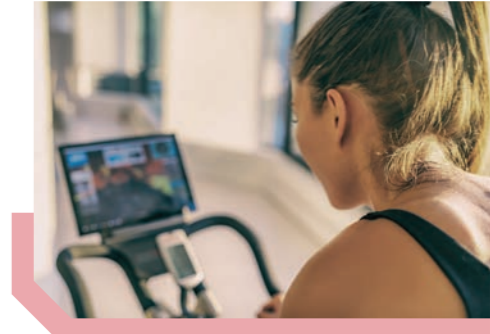
퇴근 후 집에서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는가 하면 각종 장비를 구비할 필요도 없이 하나의 기기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즐길 수도 있다. 지금은 ‘메타버스’ 운동의 시대다.

글. 이주안



### 메타버스 실내자전거 앱

야핏 사이클은 메타버스 기반의 실내자전거 서비스로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에 야핏 사이클 앱을 다운받아 연동하지만 하면 집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국내외 주요 도시 랜드마크를 달리며 재밌게 운동하고, 가상대결도 즐길 수 있다. 자전거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속도, 저항에 맞춰 앱 속 가상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집에서 전 세계 일주가 가능한 것.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운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금전적 보상 기반의 마일리지 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야핏 사이클의 특징이다.



### 구독형 VR 피트니스

체력을 기르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번거롭고 비싼 돈을 지불하고 싶지는 않지만 강습은 받고 싶다면 ‘펠로톤(Peloton)’을 추천한다. 피트니스계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펠로톤은 무선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이라면 언제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수업은 매일 실제 강사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된다. 펠로톤 전용 자전거를 이용하면 마이크와 웹캠을 통해 강사와 의사소통하며 운동을 할 수 있다. 꼭 펠로톤 전용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월 구독료만 내면 홈트레이닝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 VR 피트니스 게임

VR 피트니스 게임은 굳이 외출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무료로 운동할 수 있고, 헬스장을 찾는 것을 꺼리는 운동 초보자 사이에서 인기다. 대표 게임으로는 ‘비트 세이버’가 있다. 헤드셋을 착용하고 양손에는 모션 컨트롤러를 잡은 채로 가상 캐릭터가 되어 움직이며 운동한다는 새로운 방식을 선보이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다른 VR 리듬 게임인 ‘피스톨 힙’은 가상세계의 몰입감과 리듬, 그리고 슈팅 게임 요소까지 접목하였다. 온종일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 걸어 다니게 한다는 점만으로도 운동 효과를 준다.

### VR 피트니스 앱

가상현실 피트니스 앱 ‘슈퍼내추럴’은 가상 환경에서 날아오는 여러 색깔의 구슬을 맞춰 격파하는 전신 운동이다. 스쿼트, 런지 등의 무산소 운동과 심박수가 빨라지는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 효과적인 운동량을 자랑한다. 슈퍼내추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메타의 VR 기기인 오쿨러스 퀘스트 헤드셋이 필요하다. 헤드셋을 착용하고 게임을 실행하면 장엄한 자연 앞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운동은 코치가 선곡한 음악과 지시에 따라 진행되며 모바일 앱과 연동해 날마다 한 운동의 점수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



## 낭만과 감성이 넘치는 여행자들의 꿈의 공항

사람들로 분주한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을 손에 들고 수속을 기다리는  
들뜬 얼굴의 여행자들...

공항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표정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모두가 지금을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떠남과 다시 돌아옴의 장소이자  
수많은 이들이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창이 되는 곳  
인천공항은 낭만과 감성으로 넘쳐납니다.

이곳, 인천공항에서  
바라던 여행을 시작하세요.



KIMUSTUDIO<sup>®</sup>

# Bon Voyage

우리 곁에 머무는 여행



승리 특에 머무는

Bon Voyage



## 당신에게 '여행'이란 무엇인가요?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마저 아무 거리낌 없이  
맛있게 먹으며 행복해질 수 있고,  
낯선 도시에서 만난 사람과 인스타그램을  
팔로워 하며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진을 찍기보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여행의 기억을 남겨 둡니다.

여행은 그리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잊히지 않는 기억을 만들어 냅니다.

그 기억의 시작에  
인천공항이 함께 하겠습니다.



## 일상 밖에서 다시, 나를 찾아가는 여행



‘여행’은 그런 것이다.

익숙한 공간과 익숙한 시간에서 벗어나 익숙한 생각과  
익숙한 행동을 잠시 멈추고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나답다고 믿었던 것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를 찾아 여행을 직조해 나간다.

그것만으로도 떠나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오늘 새로운 ‘나’를 만나러 가는 이들의 찰나를 담았다.

글. 이정인 사진. 유승현

### 산토수

“저는 네팔에서 온 산토수라고 해요. 6년 전 한국에 있는 한 회사에 취업해 현재 순천에서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네팔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보고 돌아오려고 인천공항을 찾았어요. 3년 반 만에 가는 고향이라 너무 설레고 좋아요. 한 달 정도 머물면서 그동안 그리웠던 사람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폭 쉬다가 다시 돌아오려고요.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제가 지냈던 카트만두에도 많이 놀러 오세요.”







**장정희+장우빈**

“오래 떨어져 지냈던 가족도 만나고 여행도 하기 위해 15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다시 밴쿠버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제 아들은 밴쿠버에서 태어나 이번에 처음 한국을 방문했는데 다 신기하고 좋았나 봐요. 특히 부산이 가장 좋았대요. 저는 제주도가 좋았고요. 오랜만에 찾은 한국은 모든 게 스마트화되어 있어 신기하면서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이제는 자주 한국을 방문해 더 다양한 곳을 여행하고 싶어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부여군 지부**

“저희는 부여군청 직원들로 구성된 산악회 소속으로 이번에 장기휴가를 받아 히말라야를 트래킹하고 돌아오려고 인천공항을 찾았어요. 12년 전 히말라야의 한 코스를 등반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오래 남아 꼭 다시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네요. 7박 9일 일정으로 히말라야 랑탕코스를 트래킹하고 돌아오려고요. 이번에 함께 가는 저희 9명 모두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내다 돌아올게요.”





## 인공지능은 인천공항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

인공지능 플랫폼 ChatGPT가 연일 화제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과학자들만의 기술이 아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 붐은 공항-항공 산업 분야에서도 반가운 현상이다.

그렇다면 주어진 시간 안에 자원을 최적으로 투입하고,

시간당 여객 및 화물 수송 능력을 최대화하는 데 목표를 두는

공항 업무에는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까?

글. 송동호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딥러닝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는 2012년, 딥러닝 기술로 기계학습분야에 혁신을 가져왔다. 컴퓨터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하여 학습하는 딥러닝이 등장하자 인공지능을 필두로 4차산업 기술이 획기적 도약을 맞이했다. 영상 및 음성인식 기능이나 자동번역, 빅데이터 시계열분석 등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며 얻어낸 결과물은 수많은 응용서비스에 적용됐고, 우리는 이미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 모든 공항 업무에 적합인가’에 대해서는 선뜻 명쾌한 답을 내놓기 어렵다. 그러나 몇 가지 기술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딥러닝 기술에는 ‘양질의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학습 데이터의 질과 양은 신경망이 반복 학습을 거치며 스스로 정확도를 개선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에서도 스마트패스를 위한 얼굴 인식, 터미널 내 여객 흐름 분석을 위한 여객 인식, 터

미널 내 경비 보안을 위한 AI 영상 인식을 거치며 그간 많은 학습데이터를 수집, 정제, 저장하고 성공적으로 활용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낳았다. 순기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공항이 직면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는 점이다. 하지만 딥러닝 기술을 막무가내로 업무 개선에 적용하려는 역기능도 생겼다. 이번 지면을 통해 빌려 딥러닝을 비롯한 몇 가지 인공지능 기술을 설명하고, 이 글을 읽는 이들이 저마다 공항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그려보길 바란다.



습의 경우 목표 상태를 주고 이 상태에 도달하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훈련할 때 당근과 채찍을 쓴다. 강화학습에 기반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초기에는 목표 값을 잘 찾지 못하지만, 당근과 채찍에 익숙해지면서 기존 데이터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최종 목표치를 찾아가간다. 예를 들어, 항공 사고는 복잡한 세부 사안의 인과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어난다. 이러한 인과 관계를 모두 확률모델로 표시하고, 공항에서 발생할 사고를 예측하는 일이 이 분야 기술에 속할 수 있다.

### 둘째, 위기대응 골든타임을 지키는

#### 논리기반 인공지능 기술이다.

공항에 안개와 구름이 자욱해 활주로 가시범위(RVR)가 550m 미만으로 관측되면 저시정 주의가 내린다. 이 단계에서 날씨가 더 나빠져 모든 활주로 가시범위가 125m 미만으로 떨어지고 이 상황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한편, 운

### 첫째, 위험을 예측하는 확률추론 분야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나 마르코프 모델 강화학습 기술 등이 이 분야에 속한다.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들이지만, 이 기술들의 공통점은 ‘확률’과 이전상태와의 인과관계에 있다. 의사결정을 내릴 때 확률을 계산하거나, 과거의 이력을 도입하여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 기술의 장점은 딥러닝과 비교해 학습데이터 의존도가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물론 과거 사례가 많으면 확률치를 보다 정확히 계산하는 데 도움은 된다. 하지만 강화학





항 지연이 90분 이상에 이르면 저시정 심각 단계로 격상된다. 이처럼 날씨 상태와 활주로 가시범위, 비행 조건, 이로 인한 위기 대응은 서로 논리적인 연관성을 지닌다. 그리고 공항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업무도 이처럼 사물간의 논리적 관계로 연결할 수 있다. 이 관계와 요소들이 모이면 하나의 지식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인공지능 스스로 추론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갖춰진다. 지식베이스를 기반으로 질의응답을 수행하면서,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이미 공항이 보유한 위기대응 매뉴얼은 방대하다. 특정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느 부서의 어느 직원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다. 이를 모두 지식베이스화하여 저장해 두고, 위기 대응 시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면? 사람이 당황하는 사이 대응 지연이 발생하여 위기대응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셋째,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인공지능 플래닝 기술이다.

항공 물류창고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입고’와 ‘출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간마다 이륙과 착륙을 반복하는 수화물 비행기 스케줄에 맞춰 물류를 빠르게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항공컨테이너(ULD)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정방형이 아니다. 따라서 다양한 화물을 크기와 모양에 맞춰 적재적소에 넣기가 어렵다. 무거운 화물을 잘못 넣으면 다시 꺼내 적합한 위치에 다시 넣기보다는, 시간에 쫓겨 그냥 실어 보내는 경우도 많다. 평균 적재율이 70%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컨테이너를 화물기 안에 얼마나 적절하게 위치 시키느냐도 중요하다. 컨테이너가 기내에 잘 자리를 잡아야 여러

공항을 다니는 화물기가 물건을 내리고 넣을 때, 화물의 자리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물류뿐만이 아니다. 공항은 늘 자원을 최대 효율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체크인 데스크나 탑승교, 게이트 등은 공항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도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UVA와 같은 무인기 비행경로 설정 역시 공항 자원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플래너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대형 공항이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완벽하게 최적화해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일이 모두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다. 자원 할당의 문제, 물류처리 문제는 이미 그 복잡도가 작업하는 사람의 사고 한계를 넘어섰다. 따라서 인공지능 플래닝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딥러닝 외에도 다양하다. 저마다의 특성에 맞춰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공항 내 전문가들이 업무 혁신을 시도할 때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중 챗 GPT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다양한 자원과 방대한 시스템을 가진 공항은 그 잠재력이 더욱 크다. 게다가 딥러닝 기술에서는 방대한 학습데이터가 필수지만, 다른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는 학습데이터가 없어도 훌륭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유럽의 허브공항은 여객수송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공항 터미널 내 자원을 분 단위로 쪼개 할당한다. 또 여러 항공사가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하면서 하드파워가 아닌 소프트파워로 확장하는 사례도 많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많다는 의미다. 가장 좋은 답을 찾는 일은 사람의 몫이다. 물론 당면한 문제 해결에 어떤 인공지능이 더 적합한지에 판단할 때는 전문가 자문도 필요하다. 문제가 있다면 답이 있게 마련. 여기에 인공지능이 좋은 열쇠가 되어줄 것이다. 🗝️



## 다시 찾아온 봄 다시 활력 찾은 인천공항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해제되면서 인천공항이 3년 전 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글로벌 허브 공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하루 12만 명(2023. 3월 기준)에 달하는 이용객들이 인천공항을 찾고 있으며, 인천공항 또한 공항 안팎을 정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혹독한 시련 끝 되찾은 일상이기에 인천공항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최상의 서비스로 이용객들 일상에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한다는 다짐이다.

글. 편집실

다시 불을 밝힌  
공항버스  
인천공항-서울  
심야공항버스 운행 재개



인천공항과 서울 구간을 잇는 심야공항버스의 운행이 3월 20일 재개됐다. 3월 재개된 노선은 제1여객터미널을 운행하는 N6000(강남고속터미널), N6001(서울역) 2개 노선과 제2여객터미널을 운행하는 N6002(강남고속터미널, 서울역) 1개 노선을 합한 총 3개 노선으로, 5월부터는 5개 노선(일 26편)으로 운행이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심야공항버스 운행 재개에 관한 협의를 버스 운송사와 진행해 왔으며, 적자가 예상되는 심야공항버스 노선에 대해 운행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심야공항버스 운영을 재개할 수 있었다. 인천공항은 심야공항버스 운행 재개뿐 아니라 공항 운영 및 서비스 확충에 만전을 기해 여객 회복기에 공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상세 노선 및 운행시간은 인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천공항 심야버스  
인천국제공항 → 교통/주차 →  
대중교통 → 버스 → 심야버스



**봄맞이 대청소 실시  
코로나 흔적 지우기 나선 인천공항**

인천공항은 3월 1일부터 45일간 주요 시설물 내·외부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비는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교통센터 등 인천공항 시설 전반에 걸쳐 진행됐으며, 매일 300여 명의 인력과 120여 대에 이르는 장비가 동원돼 공항 시설의 위생 및 유해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정비했다. 외벽 환경 정비도 함께 이뤄졌다. 인천공항은 50여 명의 인력과 20여 대의 장비를 동원해 외벽 유리 약 10만 장, 2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의 목은 때를 벗겨냈다. 작업 난이도가 높은 지상 65미터 위의 계류장관제탑 외부 유리벽도 빠뜨리지 않았다. 물청소로 이용객들에게 보다 깔끔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인천공항. 코로나 흔적을 지우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이용객들은 지난 코로나 시련을 잊고 인천공항에서 여행의 설렘을 만끽하고 있다.



**한-중 항공여행 규제 완전 철폐  
여객수요 정상화 앞당기는 인천공항**

인천공항 중국 노선의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팬데믹 발생 이후 한-중은 최대 28일에 달하는 의무격리 등의 규제로 코로나 방역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양국 간 단기비자 발급 재개, 3월 초 입국 후 검사의무 해제에 이어 3월 11일부터 중국 발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한-중 간 항공여행의 규제는 전면 해제되었다. 하지만 중국 내 해외여행 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운항 증가분만큼 여객수요가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인천공항은 중국 여객 회복률 50%를 목표로 여행사 및 항공사에 판촉비 지원, 다양한 SNS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 관문 공항이라는 이름에 부족함이 없도록 22년간의 공항운영 노하우를 결집하여 공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다짐이다.



**인천공항을 만나는 특별한 방법  
공항견학 프로그램 재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공항견학 프로그램이 3년 만에 재개됐다. 팬데믹 이전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공항견학을 목적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공항견학 프로그램은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였다. 공항견학은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별 서로 다른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객은 내부 시설 및 조형물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은 제2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제2여객터미널 홍보전망대. 첨단 스마트 기기들로 조성된 홍보관에서는 공항 모형과 3D맵, 디지털 영상 쇼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인천공항에 대한 역사와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전망대에서는 공항 계류장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견학은 5세 이상 어린이 및 중·고등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단체일 경우 10인 이상 80인 이하 인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공항견학 프로그램은 인천공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항견학 신청하기**  
인천국제공항 → 홍보센터 → 견학/관람 → 공항견학





#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1분 만에 로밍하기 가제트코리아

출국 전 반드시 해야 하는 로밍 때문에 공항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다.  
비행기 시간이 촉박한 이들은 더욱 애가 타지만,  
해외에서는 길 찾기부터 정보 검색, 번역까지 써야 하기에 긴 로밍 줄을 지나칠 수도 없다.  
이러한 불편을 줄여줄 eSIM 기반의 글로벌 로밍이 시작되었다.

글. 강나은 사진. 유승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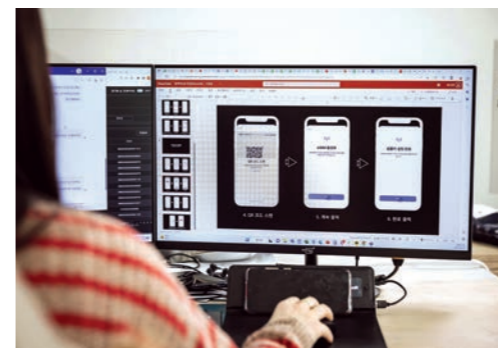
## 인천공항에서 3세대 로밍을 만나다

eSIM 기반의 글로벌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제트코리아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고객 데이터를 1분 만에 연결하는 서비스를 내놓았다. 이로써 한국에도 3세대 데이터 로밍 플랫폼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1세대가 기존 통신사 로밍 서비스라면, 2세대는 포켓 와이파이나 현지 공항의 USIM을 활용하는 서비스이다. 3세대 데이터 로밍은 스마트폰 디바이스 내에 장착된 eSIM을 활용한 로밍 서비스로, 기존처럼 SIM을 교체하거나 포켓 와이파이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현지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가제트코리아의 eSIM 로밍 서비스가 인천공항 스타트업 육성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여행의 시작이자 끝을 책임지는 인천공항에 eSIM 기반의 글로벌 로밍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공항에 USIM이나 로밍 부스가 많은데, 부스에 줄을 서야 하고 사용한 뒤에 포켓 와이파이를 반납해야 하는 과정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출국할 때는 늘 시간에 쫓기게 되잖아요. 그 바쁜 시간에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가제트코리아는 이에 착안해 글로벌 로밍 웹사이트에 접



속하여 데이터를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QR 존을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건넸다. 인천공항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인천공항 스타트업 육성사업 ICN-LAB에서 가제트코리아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실증사업으로 QR 존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는 인바운드 고객에게도 가제트코리아의 서비스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인천공항은 가제트코리아의 성장을 위해서도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프로모션 영상 촬영 때문에 공항 촬영을 요청했을 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낯선 개념이었던 eSIM을 활용한 로밍 서비스는 한국 최초로 선도적인 역할을 한 가제트코리아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 3세대 로밍 서비스는 정해진 요금제 없이 직접 용량을 정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부족하면 충전도 가능하다. 또한 아시아를 묶어서 데이터를 사용하면 국가별로 따로 데이터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

“이제 데이터는 우리 삶과 떨어질 수 없고, 특히 해외여행 시에는 정말 필수적이라서 저희 방식의 로밍서비스만으로도 여행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제트코리아는 화이트라벨 계약 제휴를 통해 eSIM의 고유값인 ICCID를 제작할 수 있다. 스마트폰 상단에 통신사가 표시되는 자리에 통신사 대신 여행사 이름이나 회사 이름을 넣어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굵직한 여행사 몇 군데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왔고,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을 상품으로 한 여행 패키지에 사은품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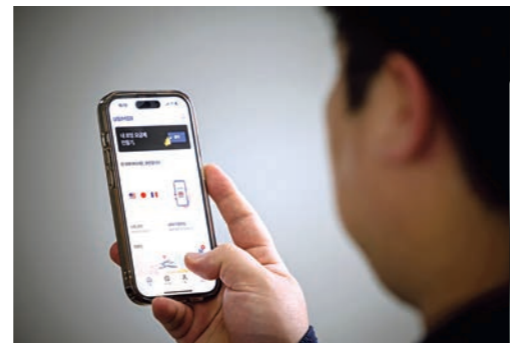


**가제트코리아**는 우리나라 최초로 eSIM 기반의 글로벌 로밍 서비스를 제공한 스타트업으로, 해외에서 데이터를 간편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가제트코리아는 전세계적인 기업과의 협력과 화이트라벨 계약 제휴 등을 통해 성장해가고 있으며 향후 5년 안에 전 세계 해외여행자의 1%인 1,4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향한다.

잘 들어주셨고, 인천공항공사에서 연결해주신 액셀러레이터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코칭해 주셨어요. 또 곧 열릴 IR 데모데이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받는 기회가 열릴 것 같아 기대됩니다.”

**24시간 해외 로밍 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코로나19가 한참이어서 해외여행이 모두 막혀있었던 2020년 11월 유상혁 대표는 가제트코리아를 창업했다. 이때가 기존 시장이 재편될 시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 예상은 맞아떨어져 작년 9월, 한국에 eSIM이 론칭되어 로밍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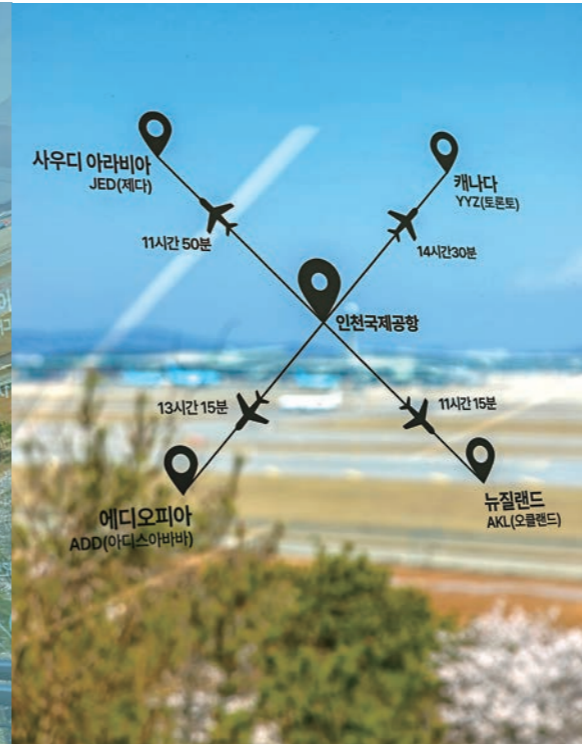
가제트코리아의 2022년 매출은 5억 원에 그쳤지만, 2023년 매출은 1분기만 해도 9억 원에 달한다. 이 성장세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해외여행 건수가 50%만 회복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나오고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 로밍 시장은 혁신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간편하게 로밍 방식을 바꾸고 있고, 해외 로밍 시장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만큼 고객에게 미쳐 있는 회사가 없다는 자부심으로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인천공항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오성산 전망대 & 제2여객터미널 홍보전망대

비행기 이·착륙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인천공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그야말로 인천공항의 알짜배기만을 모아 놓은 곳이자 인천공항의 모든 것이 총집합되어 있는  
오성산 전망대와 제2여객터미널 홍보전망대를 소개한다.

정리, 편집실 사진, 유승현



### 오성산 전망대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서로 279(남북동)  
\*내비게이션 검색어: 인천공항 전망대  
**가는방법:** 버스 306번(제1여객터미널 3층 2번, 13번 정류장)  
**운영시간:** 10:00~17:30(연중무휴)  
**문의:** 032-751-2117

전망대에 올라가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주관제탑, 3,750m 길이의 제1, 2활주로, 4,000m급 제3, 4활주로가 한눈에 보이고, 탑승동, 지상 관제를 담당하는 제1계류장 관제탑, 제2여객터미널, 제2계류장 관제탑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여기에 제2여객터미널 옆에 위치한 정사각형 모양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격납고 건물도 볼 수 있어 쉽게 볼 수 없던 인천공항의 다양한 모습을 파노라믹 뷰로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인천공항은 오성산 전망대 관람객에게 보다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관람객을 맞고 있다. 최근에는 2층 야외 테라스도 전면 개방해 야외에서 실감 나는 이·착륙 소리를 들으며 인천공항을 생동감 있게 조망할 수 있다. 특히 전망대 주차장에서부터 인천공항 오성산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자연의 경관을 만끽하며 공항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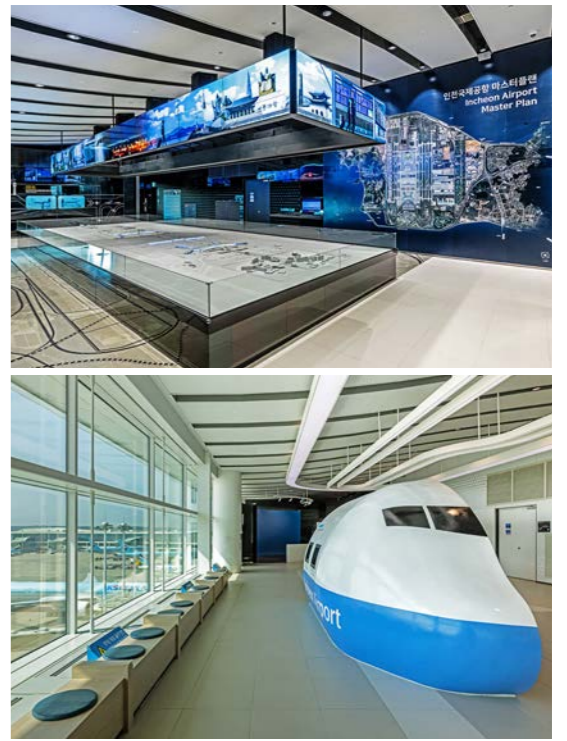






### 공항의 과거와 미래가 함께하는 '제2여객터미널 홍보전망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제2여객터미널 홍보전망대는 공항 계류장과 비행기를 바라보며 인천공항 체험시설 등을 즐기는 첨단 스마트공간이다. 이곳은 제2여객터미널 최상층에 위치해 역사관, 홍보관, 전망대 등의 다양한 주제와 시설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제2여객터미널 4층 천장에 연출된 갈매기 조형물을 따라 5층에 올라가면 하늘로 비상하는 비행기 궤적이 연출된 진입브리치가 가장 먼저 방문객을 맞이한다. 브릿지 좌우 측으로는 인천공항의 건설단계별 목표와 성과가 문화예술 드로잉 작품과 함께 구성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다음으로 홍보존을 방문하면 모형 맵핑 영상과 DID 영상을 통한 복합 멀티미디어 쇼를 통해 인천공항의 역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3D 홍보영상은 룬보드를 타고 공항시설을 경험할 수 있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역사관-전망대에서는 인천공항이 개항 이후 세계적인 공항으로 성장하기까지 약 20년의 인천공항 역사를 감상할 수 있으며 인천공항이 걸어난 길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별한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면 타임 슬라이스 포토존을 추천한다. 일반인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인천공항의 다양한 공간을 배경에 합성해 재미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

### 제2여객터미널 홍보전망대

**위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일반지역 5층 중앙

**운영시간:** 07:00 ~ 20:00(연중무휴)

**문의:** 032-741-0015~6



오성산 전망대&제2여객터미널 홍보전망대 영상으로 만나보기



## 집에서 공항까지 스마트하게 인천공항 가이드 모바일 앱

집에서 출발해 공항 수속 후 탑승하고자 하는 탑승 게이트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확인해 주는 어플이 있다.  
실시간 주차장과 출국장의 혼잡도와 공항의 쇼핑매장, 이용시설, 운항정보 또한 터치 한 번으로  
간편히 확인할 수 있는 ‘인천공항 가이드 앱’을 소개한다.

정리, 편집실



### 인천공항 가이드 모바일 앱 이용 꿀팁

인천공항 가이드 앱은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여행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핵심 기능 몇 가지는 알아두고 유용하게 이용하자.



### ① 모바일 앱 다운로드

검색어 입력: 앱 마켓 검색창에 ‘인천공항’ 입력  
→ 앱 설치: 인천공항 앱 선택하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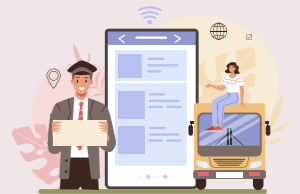


앱 마켓 등록 현황

• 구글 플레이 스토어 • 애플 앱 스토어

### ② 인천공항 가이드 앱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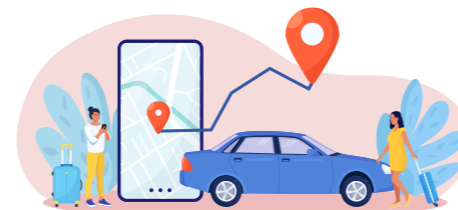
- 출/도착 정보 확인
- 실내지도를 통해 휴식공간, 식음료 매장 위치 검색 기능
- Home to airport 기능(현재 위치에서 공항 탑승구까지 소요시간)
- 실시간 주차장 혼잡도
- 실시간 출국장 혼잡도
- STAFF 메뉴에서 셔틀버스 스케줄 확인 가능  
(일반 여객도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 여객 주로 AICC ↔ T1 ↔ T1 노선 이용)



### ③ ‘내 일정 기능’ 알아보기

‘내 일정 기능’은 ◆항공편 정보 ◆공항예상 혼잡도 ◆주차가능대수 ◆출국장혼잡도 ◆출국 전 준비사항 등 공항이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타임라인 방식으로 구성해 인천공항을 처음 방문하는 여객들도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출발 전 공항 예상 혼잡도, 도착 터미널 이용 안내, 면세구역 이용 안내 및 탑승게이트 안내, 입국 시 수하물 수취대 안내 및 대중교통 안내 기능이 있는 ‘위치기반 알림 기능’ 서비스로 편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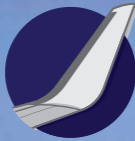




## 비행기 날개 끝 '윙렛'을 주목하라

비행기를 타서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을 때  
비행기 날개 끝이 위로 꺾여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윙렛(Winglet)'이다.  
비행기가 지상에서 이륙해 하늘로 날아오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윙렛에 대해 알아보자.

글. 편집실



### 날개 끝이 구부러진 이유?

윙렛은 비행기 주날개 끝에 수직 또는 거의 수직으로 부착하는 작은 날개로 거대한 날개에 비해 조그마해 보이지만 비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행기는 총 4가지의 힘이 작용해 뜨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양력'이다. 양력은 비행기 주위로 흐르는 공기를 수직 방향으로 들어 올리는 힘을 말한다. 비행기는 이 힘(양력)으로 위로 뜨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항공기의 날개 끝부분에는 윗면과 아랫면을 분리해 주는 날개가 없다. 그래서 비행기 날개의 앞부분에서는 공기가 직선으로 들어오는데 끝부분에 도달하면 공기가 교란받아 소용돌이처럼 변하게 된다. 이를 와류라고 한다. 와류는 날개 아래의 공기가 밑 쪽으로 내려가는 흐름을 만들어 비행을 방해한다. 윙렛의 진가는 여기서 나타난다. 날개 끝을 꺾으면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공기들이 꺾인 부분을 따라 부드럽게 위로 올라가 자연스럽게 분산되어 와류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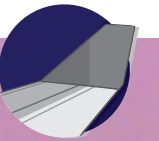
### 윙렛으로 연비를 줄인다고?

무거운 비행기를 하늘에 띄우려면 막대한 연료가 소모된다. 자체 무게만 100여 톤인 데다 승객, 화물, 기름의 중량까지 감안하면 300톤 정도의 물체를 상공으로 날려야 한다. 그런데 와류는 앞으로 가려는 비행기를 잡아당기는 '항력'의 원인이 된다. 이때 윙렛은 와류로 인한 유도항력을 10~30% 감소시켜 연비가 좋아진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보잉 737-800에 블렌디드 윙렛을 장착해 2011년 약 139만 달러(18억 6,287만 원)의 운영비를 절감했다. 또한 연료 탑재량도 적어져 비행기 중량에 따라 매겨지는 공항 착륙료도 줄일 수 있다. 이 외에도 공기역학적 성능도 개선되어 이륙 후 좀 더 가파른 각도로 상승이 가능해 봄비는 공항 상공을 빨리 벗어나 순항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준다.



### 윙렛이 없는 비행기도 있다?

보잉의 대표적 기종 중 하나인 B777에는 윙렛이 없다. 그 이유는 항공기 특유의 넓은 전폭 때문이다. B777의 전폭은 약 64.8m. 만약 윙렛을 달아서 비행기 주날개 폭이 65m를 넘게 되면 비행장 코드가 F인 대형 공항에만 이착륙이 가능해 B777을 운용할 수 있는 공항의 수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한 B777과 같이 날개가 긴 비행기에 윙렛을 붙이면 진동이 과도하게 생길 수 있다. 이에 보잉사가 최근 많이 사용하는 윙렛은 '레이키드 윙팁(Raked wing tip)'이다. 레이키드 윙팁은 주날개 끝부분이 위로 접하지 않은 대신 뒤로 꺾어서 와류를 억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수직 방향 윙렛보다 주날개 전체 면적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 날개 크기가 커지면 양력이 좋아져 이착륙 시 활주거리도 줄일 수 있다. 🌐







**누적 환승객  
1억 명 달성**

인천공항이 개항 22년 만인 2023년 3월 2일 누적 환승객 1억 명을 돌파했다. 인천공항 환승객은 개항 당시인 2001년 163만 명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723만 명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2021년에는 54만 명 수준까지 급감하며 위기를 맞았으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400% 성장한 271만 명을 기록하며 중국·일본 등 경쟁공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는 인천공항 전체 여객의 20%를 차지(2019년 기준)하는 중국을 비롯한 코로나19 이후 후발 국경재개 지역(일본, 대만, 홍콩 등)의 공급과 수요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발도상국  
항공인재 양성 지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산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여성 항공인재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지원한다. 공사가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ICAO와 캐나다 맥길대가 공동으로 개발한 '여성 커리어 및 리더십 개발과정' 교육으로, △커리어관리 △갈등관리 △협상기술 등 개발도상국 여성 인재의 리더십 함양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이번 교육과정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ICAO 등 국제기구, 국내외 우수 대학 등과 전략적 협업을 강화해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글로벌 항공 관계자 대상 맞춤형 교육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서울구간  
심야공항버스 운행재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서울 출도착 심야공항버스의 운행이 재개되었다. 이번에 재개되는 노선은 제1 여객터미널을 운행하는 N6000(강남고속터미널), N6001(서울역) 2개 노선과 제 2터미널을 운행하는 N6002(강남고속터미널, 서울역) 1개 노선을 합한 총 3개 노선으로, 3월 20일 22:40분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출발하는 N6000(제1여객터미널행) 노선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인천공항까지의 소요시간은 기점 출발 후 약 1시간 10분 가량 소요되며, 신용산역, 염창역, 송정역을 경유한다. 서울심야공항버스 탑승은 교통카드나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제1터미널 입국장에  
'전통문화미디어월' 신규 조성**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한국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32K 고화질의 미디어 아트가 송출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립고궁박물관, 한국문화재단과 협업해 '전통문화미디어월'을 조성해 고화질의 전통문화 미디어아트를 송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전통문화미디어월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50m 구간에 조성됐으며, 기존의 노후된 미디어월을 32K 고화질의 LED 모니터로 교체하였다. 전통문화미디어월에서는 한국 전통문화를 영상으로 표현한 △조선왕실보자기 △나전칠기 △전통춤 △한글 4종류의 미디어아트 콘텐츠가 순차적으로 송출된다.





**‘2023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  
3관왕 달성 쾌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RAI 컨벤션 센터에서 영국 스카이트렉스(Skytrax)社 주관으로 열린 ‘2023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2023 World Airport Awards)’에서 인천공항이 3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인천공항이 수상한 분야는 △세계 최우수 공항직원상(World’s Best Airport Staff) △아시아 최우수 공항직원상(Best Airport Staff in Asia) △최우수 공항 출입국심사상(Best Airport Immigration Service) 3개 부문이다. 인천공항의 이번 수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공수요 증가 세에 맞춰 선제적으로 정상화 해나가는 과정에서 얻은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국제 강아지의 날’ 맞아  
유기견 봉사활동**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유기견 보호소에서 동물권 보호 및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과 20여 개의 공항 상주기관 소속 약 70명으로 구성된 ‘인천공항 합동 자원봉사단’은 지난 17일(인천 계양구 아크보호소)에 이어 24일(인천 남동구 산수의천사들)에도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한편, 공사는 2022년 이후 인천공항 상주기관(사) 20여 개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인천공항 합동 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공항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시행 중이다.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개항 22주년 기념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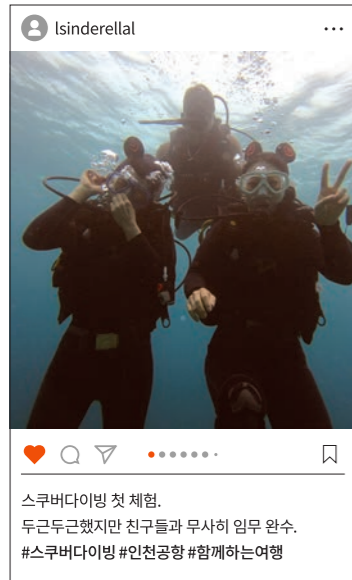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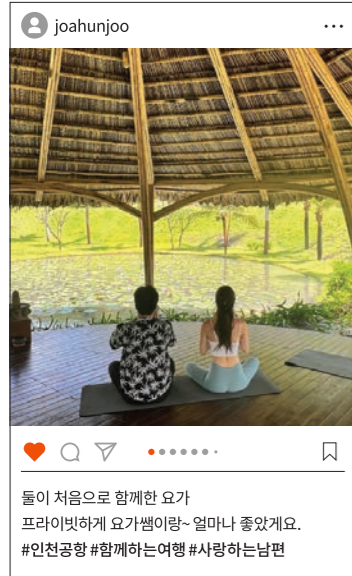
지난 2001년 3월 29일 개항한 인천공항이 올해로 개항 22주년을 맞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월 29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밀레니엄홀에서 ‘인천공항 개항 22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을 포함해 공사 및 자회사, 공항상주기관, 항공사, 물류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현재까지 그간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각오를 다졌으며, 인천공항의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한 유공자 50명에 대한 포상도 진행하였다.



**인천공항공사  
고객만족도조사 최고등급 획득**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21년도 평가에서 최고등급 획득 이후 2년 연속 달성한 성과이다. 이번 평가는 총 25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평가대상 공기업 중 ‘우수’ 등급을 획득한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해 단 5개 기관에 불과하다. 정부경영평가 대상 1군 공기업(10개) 중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해 2개 기관뿐이다. 공사는 전 세계적인 방역규제 완화로 여객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함께하는 여행



응모방법

2023년 5+6월호 인스타 주제는 #기억하는여행입니다.

SNS 채널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문화매거진 #기억하는여행을 태그해 주시거나, 태그 관련 사진을 편집실 이메일 [aseahog@naver.com](mailto:aseahog@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응모기간: 2023년 6월 5일까지

시간여행



TV 프로그램 <알쓸인잡> 4회 '기적을 만든 인간' 편에서 김영하 작가는 "저는 인생이 마디가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과거를 동영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에피소드만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렇다면 조촐하게 뭔가를 만들고, 기념할 만한 거를 하고, 선물을 주고 이거는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천문학자 심채경 박사는 "우리가 어릴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스냅샷의 개수가 줄어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어린이는 과거의 기억이 영상으로 남아 시간이 좀 더 길게 느껴지고 어른의 기억은 스냅사진처럼 남아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스냅샷의 개수가 적은 사람들은 그만큼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느끼겠지요.

인종, 신분 등 모든 것을 떠나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지금이라는 의미가 영어로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Present'인 것처럼 시간은 선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을 자주 미루고는 합니다. '내일 하지 뭐'하는 순간 내일은 일 년이 지나 있고, 일 년은 십 년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풍요로운 삶을 즐기고 싶다면 지금 '시간'이라는 여행을 떠나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가족과 함께 미뤄두었던 여행을 떠나 잊지 못할 스냅샷을 저장하고 돌아오세요. 김영하 작가의 말처럼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따스한 봄날의 기억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 돌아오세요.